

17/01/01(주) 주일예배 / 제목 : 서로 칭찬합시다(살전 1:1~10) p. 329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칭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칭찬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자 그는 ‘**에디슨**의 칭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자동차 엔진개발을 추진할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식사 모임에 참석했던 에디슨이 포드의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 책상을 치며 "젊은이, 이것은 걸작이야. 자네는 벌써 해낸거나 마찬가지일세."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포드는 에디슨의 예견대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 포드는 감격의 순간에 과거에 에디슨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에디슨이 책상을 치는 순간 나는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칭찬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비웃었을 때 단 한 사람 에디슨이 포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세상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칭찬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칭찬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닙니까? 칭찬할 때와 칭찬 받을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 받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1998년도에 시작된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각계각층의 숨어있는 우리 시대의 천사들, 정말 칭찬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찾아서 시상하는 프로그램인데 비판과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우리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드의 예화'나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본문이 칭찬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까지 성령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성전과 같이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등 교회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으며, 인내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구절절 칭찬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행복감이 깊이 젖어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또 바울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우 의미 있는 책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는 어떻게 씁니까? 아무에게나 씁니까? 그것도 첫 번째 쓴 편지 말입니다. 편지자체가 우리 마음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것이 생각나는데 어느 분이 총각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매일 편지를 썼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메일도 있고 카카오톡이 있어서 쉽게 편지를 쓸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일일이 편지지에 편지를 써야 했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여자분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모든 편지를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편지란 귀한 정성과 사랑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은 간단하게 자기 이름만 썼습니다.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랑스러운 교회의 직함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바울은 자신을 3가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참으로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아무 직함도 없습니다. 그 이름만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얼마나 친숙한가? 얼마나 격의 없는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직함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말할 때 “여보 나예요” 이렇게 말하지요. 아마도 “여보 나 김사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말할 때에 “저예요” 이렇게 말하지 “나 최부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직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 간 것입니다.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무슨 일을 하는가 감시가 아닌 그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관계, 견제가 아닌 모든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하는 교회가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에 바울의 마음과 입에서는 칭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입니까?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사랑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내가 눈꺼풀이 썩었지, 뭐가 좋아서 그때 결혼했지? 후회된다. 후회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싸늘해지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우면서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말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야! 너를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엄마는 참 행복했다. 기뻐다.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야 아이들이 감동을 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앞에 놓고 “그래, 너는

안 낳았어야 하는건데, 너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다. 어찌다 이렇게 됐지? 한이 맺힌다. 치가 떨린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뻘한 것 아닙니까? 잘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칭찬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입니다. 칭찬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칭찬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칭찬보다 능력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어김없이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덕담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날인데 당연히 세배를 드리고 나면 세배 받으신 어르신 분들이 세배한 사람에게 덕담을 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잘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칭찬이 성도들을 얼마나 감격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을 밝게 봅니다. 웬만한 문제, 병은 칭찬 몇 마디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 3개월 만에 지나친 호기심과 주의력 결핍으로 퇴학당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육시킬 수 없는 문제아로 취급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행히도 교사였었던 어머니의 열성적인 교육 덕에 에디슨은 점차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었고 칭찬해준 것입니다.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독창적인 너 자신이 되어라.” 결국 에디슨은 무려 1300여 가지나 되는 특허를 내는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창한 꿈,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소박한 이 일 하나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칭찬부터 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을 많이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칭찬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뿐만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6절, 7절 말씀에 (6~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기쁨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인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져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온 우리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선교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일대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문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때, 사랑할 때, 희생할 때, 베풀 때 비로소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소문이 나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잘나야 손님이 손님을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도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잘나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는 안가도 누가 교회를 찾으면 소문이 잘난 교회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소문이 잘나야 합니다. 이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10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모습에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확실히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 사실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들이 본받을 점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종말신앙에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다합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권력도, 지식도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을 그 분을 위해서 멋있게 써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사실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곧 회수해 가실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능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서서 평가받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큰 꿈이 아닌 소박한 꿈입니다.

저는 우리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 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서로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열심히 칭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각처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도록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신 은사대로 베풀며 사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진정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사십시오.